

설교

Sermon

“성령의 열매 시리즈 1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출애굽기 19: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출애굽기 4: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실천 목표 3: 성령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갈라디아서 5장 25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갈라디아서 1:1)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19)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20)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1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6)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16)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14)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갈라디아서 6:17)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갈라디아서 6:11)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갈라디아서 1:1)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12)

1.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체성인 사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20)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14)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19)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복음 9:23)



2.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사랑을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6)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16)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7a)

Legalism says, “If you love God,
God will change you.”

율법주의는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바꾸실
것입니다.”

Gospel says, “God will change you,
so that you could love God”

복음은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은 당신을
바꾸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13-14)

3. 예수의 흔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고 행하는 사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14)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갈라디아서 6:17)

약속하신 성령

성령의 약속

→ 구원과 성화의 삶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3:17)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22-24)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17, 개역개정)